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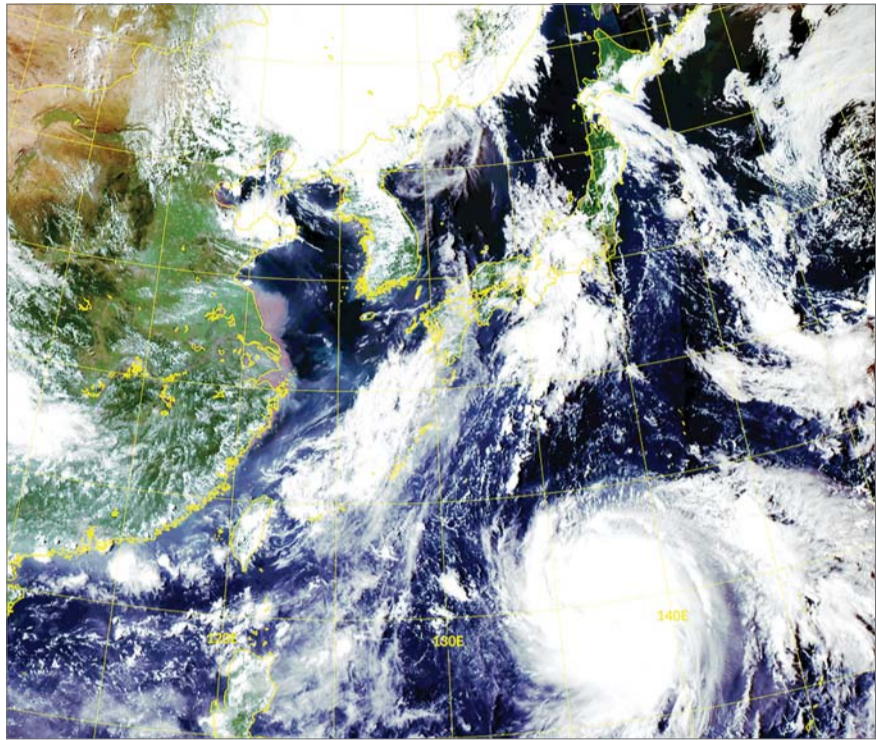


[종합] 즉석밥·음료 등 슬그머니 가격 인상 장바구니 비상 04



Economy

코스피	2395.90 (+31.53)	코스닥	874.13 (+7.39)
금리 (연평균)	0.919 (-0.004)	환율 (원/달러)	1188.30 (+2.90) (3일)



더 센 태풍 '하이선' 복상 중 9호 태풍 '마이삭' 한반도 동쪽을 할퀴고 간 3일 오후 천리안 2A 위성이 찍은 동아시아 일대 사진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몸집을 키운 채 한반도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이선은 오전 9시 기준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35m인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광 북서쪽 약 1000km 해상에서 시속 16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하이선이 중심기압 92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53m로 가장 세력이 세져 일본 규슈를 지나 6일 오전에 서귀포시 남남동쪽 710km 해상을 지나 7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판 뉴딜 170조 투입 국난극복, 경제미래 열 것”

##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文대통령, 재원 중요성 강조 “재정, 정책·민간금융 3대 축 ‘한국판 뉴딜’의 성공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 금융, 민간 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대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인프라 펀드’ 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펀드 조성 계획뿐 아니라 관련 상품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 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금융권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책 및 민간 금융이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은 100조원, 민간 금융의 경우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역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 출자 규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 매칭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데이터’로 뭉친 통신-금융사 ICT기술 바탕 금융혁신 가속

## 脫통신 시대

③ 금융사 손잡는 이통사

통신시장 포화... 새 먹거리 찾기 데이터3법 통과로 혁신기반 마련

KT-우리금융, 전략적 제휴 협약 데이터 활용 공동신사업 등 협력

이동통신업체들이 금융산업 진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금융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통사가 축적한 데이터와 금융업체들의 정보를 결합해 포화된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신산업창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 혁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데이터 경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마이데이터 시대 가속화...통신·금융 손잡는다

데이터3법이 통과하면서 ‘내 손안의 금융서비스’를 표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본인 신용정보 관리법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신용정보의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의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은행 권광석 회장(왼쪽부터), KT그룹 구현모 대표,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BC카드 이동면 사장이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금융권이 가지는 ‘데이터 주권’이고 객으로 이관되면서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으면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액시엄, 엠실론 등의 데이터 중개상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국도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마련해 기업들에게 데이터 가공이나 가치평가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자사 데이터와 IC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에 손을 뻗고 있다.

KT와 우리금융은 지난달 디지털 금융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이기

도 하다. 양사는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이 보유한 인프라에 KT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데이터 활용 공동 신사업 등에 협력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컨택 센터의 실시간 대화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식으로 금융 업무를 비대면·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가 축적한 금융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도 개발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T와 우리금융그룹의 협력도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변화의 화두로 떠오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두하기 위해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고객자산가 높아져 IPO 소액 우대, 추첨제 등 청약제도 개선 급물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58조원이나 몰리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고액자산가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 받는 방식이어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머니게임’이란 비판이다.

이에 따라 소액청약 우대방식, 추첨방식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카카오게임즈 일반 청약을 계기로 증거금 중심의 청약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IPO 신주 배정 방식 개선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은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20% 물량을 금액에 따라 배정하는 부분이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고쳐보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모주의 경우 20%를 개인



지난달 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에게 배정하는데, 배정 방식은 각 주관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주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납부한 순으로 물량을 배정받게 된다.

이번 카카오게임즈 일반 청약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최대 청약 한도는 20억8800만원이었다. 여러 증권사에 중

복청약도 가능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 2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규 계좌 개설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게임즈 공모에서) ‘어떻게 해야 청약한도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큰손 고객인 고액자산가들이 뭉터기 자금을 넣으며 청약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는 후문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소액청약 우대방식, 추첨방식 등 투자자들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발표한 ‘증권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물량의 최소 1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아예 형평성 배정기준이 일반 청약 배정방식으로 상장 규정에 명시되고, 중복청약도 불가능하다. <3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